

# 예정

## 칼 바르트의 은총의 선택론

위르겐 몰트만

칼 바르트는 1942년 자신의 교회교의학 II/2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예정론 그 자체에 있어서 나는 할 수 있는 한 칼빈에게 머물러 있기를 바랐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로부터 아주 멀어지게 되었다... - 내가 이 문제에 관하여 성경을 읽어갈수록 그리고 내가 성서에서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숙고할수록 나에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러한 새로움에 만 머무르게 될지, 아니면 그 새로움의 근거확립과 영향력이 몇 가지 또 다른 사람들을 조명하게 될지 나는 기대할 수 밖에 없다.”(VIII).

1950년부터 1952년의 기간 동안 내가 나의 박사학위논문을 위하여 17세기 베자(Beza), 고마루스(Gomarus) 그리고 모이제 아미라우트(Moyse Amyraut)에게 있어서 칼빈의 예정론을 다룬 이후로,<sup>1</sup> 나는 칼 바르트의 “새로움”을 감사하는 마음과 편안한 기분으로 환영하였던 “몇 안 되는 다른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칼 바르트가 자신의 예정론을 기독교론적으로 혁신한 것의 근거와 영향범위는 우리를 “명쾌하게 해 주었다”.

본 강연에서 나는 “예정이나 아니면 은총의 선택이나?”라는 주제가 달린 §32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이중예정?”이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는 §33을 다루고자 한다. 나는 바르트가 말한 “새로운 것들”을 강조할 것이고, 그런 다음 토론할 것이며, 바르트의 은총의 선택론을 지지하기 위하여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파울 게르하르트(Paul Gerhardt)를 끌어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선택과 유기를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 가운데서 전개할 것인데, 이는 칼 바르트와 해방신학을 서로 대화시키기 위해서이다.

### I. 하나님의 예정인가 아니면 은총의 선택인가?

1. 무시무시한 결의(decretum horribile)

칼빈과 테오도르 폰 베히 이후로 개혁교회의 예정론들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정신적인 불안을 야기하였다. 막스 베버는 그것을 가리켜 “지나치게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쓴 바 있다.<sup>2</sup> “내가 지옥에 가는 하는 있더라도, 그런 하나님은 나의 존경을 결코 역지로 강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미 존 밀턴(John Milton)이 선언한 바 있다.<sup>3</sup> 사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셨다는 것은 지옥복음이다. 지옥복음은 신앙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속명론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선택되었는가 아니면 저주 받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지옥의 고통 속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밀어 넣는 그런 신은 “폭군적 신”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으로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예정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높은 영광”을 드러낸다 라고 칼빈의 제네바 후임자였던 테오도르 폰 베히는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교의학 전체를 기획하였는데, 바르트처럼 10,000 페이지가 아니라 단지 한 페이지에 기획하였다.<sup>4</sup> 이 교의학은 선택과 유기로 시작하여 구원과 저주로 끝맺고 있다. 이 교의학은 하나님의 방법들은 알 수가 없다는 확정으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맺고 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얼마나 파악하기 어려운가! 누가 하나님에 앞서 어떤 것을 주었으며 누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갚았는가? 롬11: 36.” 이것이 바로 칼빈의 결의론이며, 바르트는 이것과 논쟁하여 그것을 새롭게 표현하였다.

그러한 결의론에는 어떤 경험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설교 때에 똑 같은 말 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본 칼빈의 경험이었다.<sup>5</sup> 믿는 사람은 복음의 부름을 듣고 자신이 선택 받았음을 안다.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 못함으로써 선택 받을 수가 없다. 신앙인의 편에서 볼 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러 있다. 신앙인의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에 있는 것처럼, 신앙인에게 있어서 불신자의 불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유기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이중예정론의 순환논리로 끝맺고 있다: 믿는 사람은 택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믿는다. 저주 받은 사람은 믿지 않으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았다.

“믿는 사람은 택함을 받았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았다.” 이러한 신앙의 이원론은 우리의 자유로운 사회에서 해롭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종교의 자유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누구나가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를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는 것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테러집단 ISIS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 세계관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살인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이원론을 기독교 신학에서 극복한 것이 칼 바르트의 위대한 공헌이다. 이슬람 신학도 이슬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집중한다면 그러한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다.<sup>6</sup>

신앙과 불신앙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버리시는 것에 대하여 사변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기정의를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버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선택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 § 32

“선택론은 복음의 총화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될 수 있는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최고의 것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고 또한 인간을 위하여 자유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이다.

선택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과 선택 받은 인간이 하나인 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론은 신론에 속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심으로써 인간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시기 때문이다.

선택론의 기능은 영원하며, 자유로운 그리고 지속적인 은총을 근본적으로 증거하는 데 있다. 바로 그 은총이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과 사역들의 시작이다.”

이제 너는 이 네 문장을 칼 바르트의 의미에서 그의 언어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고자 한다:

1. 바르트는 예정론에 관한 논의를 왜 신자와 불신자가 존재하는가 하는 설명으로부터 복음의 보편적인 선포로 옮겨 놓는다. 불신자는 왜 자신이 믿지 않는지 또는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해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신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의 증언이다. 우리는 불신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향하여 다가오신다. 바로 이것이 순수한 은혜이며, 자비로운 사랑이며, 다가오는 사랑이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본질에 일치하는 넘치는 사랑이다. 그 은혜는 자기 자신과는 다른 존재 즉, 인간과 함께 살겠다는 하나님의 근원적 결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바르트는 이것을 가리켜 “선택”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개혁교회의 결의론을 하나님의 근원적 결의로 종합하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안에서 타자를 선택하시되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이루도록 선택하신다. 이는 무엇보다 먼저 다음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은 이 타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규정하되, 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자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자족하지 않는 분으로 규정하신다. 하나님은 앞서 말한 넘쳐흐름, 다가오심 그리고 내려오심이라는 규정을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다.”(9). 이러한 “은총의 선택”이 복음의 핵심이다. 은총의 선택은 오직 하

나눔에게만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다. 그러한 한에서 바르트의 은총의 선택론은 타락전 선택설(Supralapsarismus)이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은혜”로 표현되는 반면, 하나님의 자유는 “선택”으로 표현되고 있다. 바르트는 자신의 “새로움”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물게도 몇 페이지에 걸쳐 조그마한 글씨로 개혁교회 전통과 논쟁하고 있다.

2.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을 인식함으로써 또는 자기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분명하게 인식된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론에 일치하여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위격 안에 있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요 “선택 받은 인간”이라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로 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인간 나사렛 예수 안에서 대표된 “인간백성”에게로 향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기서 바르트는 이스라엘과 민족들 사이를 아직 구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바르트는 “인간 백성”에 관하여 말한다(6). 선택된 인간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관계하는 지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바르트에게 있어서 엄격한 그리스도중심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7).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저 한 분 인간 사이의 원역사”이다. 즉, “바로 이러한 특수한 것 때문에 일반적인 것 즉, 세계와 인간이 존재한다.”(6).
3.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은 신론에 속하며, 그런 다음에야 구원론에 속한다. 하나님은 개혁교회 예정론이 강조하는 것처럼 단지 “전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권능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르트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자기규정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심으로써 그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간을 위하여 선택한다. 인간에 대한 그의 선택의 내용은 말하자면 인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은 하나님의 자기긍정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참으로 원하는 것처럼 이러한 피조물을 원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의 힘으로 인간을 긍정한다.
4. 따라서, 넷째로, 예정론의 기능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과 사역들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영원하며 자유로운 그리고 끊임없는 은혜를 근본적으로 증거하는 데에 있다.” 이 자리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과 사역들의 마지막에 관하여서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바르트가 이 §32에서 개혁교회 전통과 논쟁하는 가운데 신학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것을 루터 신학자 파울 게르하르트가 자신의 유명한 성탄절 찬양에서 표현하였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잘 표현한 사람은 없었다.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태어나셨네  
그리고 당신을 내게 주셨네,  
내가 당신을 알기 전, 나는 택함 받았네  
내가 당신의 손으로 창조되기 전  
그 때 당신은 이미 깊이 생각하셨네  
어떻게 당신께서 나의 것이 되려고 하셨는지.”(EG 37,2)

은총의 선택은 - “당신을 내게 주셔서 나는 택함 받았네” -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지, 인간의 죄를 통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은총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서 탄  
생 속에서 구체화 된다. 즉 “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내가 당신을 알기도  
전에”, “내가 당신의 손으로 지음 받기 전에” 은총의 선택은 계시된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 안에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총의 선택  
가운데 그 사람을 앞선다.

그리스도역사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총의 선택의 기적이다. 보편적인 복음은 하나님의 넘치  
는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도록 하는 수단이다.

이로써 우리는 두 가지 신학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은 교회교의학 §32에  
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1.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
2. 의지와 하나님의 본질

1. 하나님은 “자유 가운데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만일 자  
유 가운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달리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도 사랑은 자유다. 그 어떤 사람도 강제로 사랑할 수는 없다. “자유 가운데 사랑하  
시는 분”인 하나님, 그것은 하나의 동의어반복이 아닌가? 자유와 사랑은 동일한 과  
정의 두 측면이 아닌가? 그러나 바르트는 선택의 자유라는 개념에 천착한다. 하나  
님은 자신의 사랑 가운데 인간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선택하신다. 하나  
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택가능성이 있는가? “하나님은 단지 사랑일 뿐만 아니  
라, 사랑하심으로써 즉, 자신의 본질 전체를 규정하는 사랑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선택하신다.”(82). 말하자면 바르트는 “선택자 또는 그의 자유라는 개념을 절대화시  
키는 것”을 비난하기는 하지만(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라는 자신의 개념을 확고히 붙든다. 즉, “자기 자신에 자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자기 자신에 자족하지 않으시는”(9)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이다. 그러나  
바르트에 따르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에 앞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관하여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결정”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 하나님의 결의라는 개념은 이전과 이후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 안으로 끌어 들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르트에 앞서는 개혁교회의 결의론의 문제이다.

본래 선택의 자유는 자유의 유일한 또는 최고의 개념인가? “선택권을 가진 자는 괴롭다.”라는 독일 속담이 있다. 내 생각에 자유는 속성이 아니라, 관계개념이다. 자유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관계들을 표현해준다. 즉, 나는 선택의 자유를 주-객-관계에 포함시킬 것이다. 그러나 주-객-관계 속에는 다음과 같이 소통의 자유가 먼저 지배하고 있다. 즉, 내가 인정받고, 주목 받으며 사랑 받고 있는 한 나는 해방을 경험한다. 그리고 내가 인정하고, 주목하며 사랑하는 한 나는 자유를 경험한다. 나는 참여하며 참여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카스퍼 올레비안(Caspar Olevian)과 같은 개혁교회 계약신학자들은 이 자리에서 계약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De substantia foederis gratuiti inter Deum et electos, Genf 1585.<sup>7</sup> “자유”라는 단어의 독일어 어원은 “서로 받아들이다(gastfrei)” 또는 “인색하지 않은(freigebig)”라는 표현들이 말해 주고 있듯이 친절(Freundlichkeit)이다. 친절은 자유의 구체적인 개념이다(Hegel).<sup>8</sup>

2.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본질. 은총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으로 자유한가? 하나님의 자유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외적인 근거는 없다. 그러나 내적인 근거는 있는가? 바르트는 하나님이라는 주체의 의지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이 “선택한다”라는 사실은 그의 본질을 규정한다(82).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본질도 그의 의지를 규정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임의적으로 모든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본질에 일치하는 것을 선택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딤후 2:13). 후에 바르트 자신도 일치라는 개념을 이 자리에 도입하였다. 즉, 하나님은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 일치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본질에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규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인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질로부터도 출발하여야 한다.

바르트는 교회교의학 II/2에서 은총의 선택의 은혜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자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항상 다시 말한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자족하였더라면, 이러한 결정은 자신의 내적인 본질에 일치하였을까? 분명히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은 하나

님의 내적인 본질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바르트가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흐르는 것”에 대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두 가지 결정 모두가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에 동시에 일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호 모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자기 자신에게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변을 버릴 것을 제안하였고,<sup>9</sup> 오직 우리를 위한 하나님에 관하여만 말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체로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해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이미 삼위일체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 II. 예수 그리스도 안의 이중예정?

“이중예정”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선택과 유기를 의미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유기도 인식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변증법적 예정론이 될 것이다.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 §33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은총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들과 사역들의 영원한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유로운 은총 가운데 자기 자신을 죄인인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규정하시며 죄인인 인간을 자기 자신을 위한 인간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인간의 유기를 그 모든 결과와 함께 자기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고 인간을 선택하시되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선택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선택하시는 하나님과 선택된 인간의 일치이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는가? 고난 받고 죽기 위하여 선택하신다. “인간 예수의 선택 받음은 말하자면 다음을 의미한다. 즉, 진노가 일어났으며, 판결이 선포되고,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유기가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31). 칼 바르트의 예정론은 그의 십자가신학이다. 즉,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당하게 되는 유기, 그들 모두에게 놓여 있는 하나님의 진노, 그들 모두가 맞이해야 하는 죽음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함으로써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선택하시며, 그를 하나님은 그들 대신에 그들 맨 앞에 선택하신다.”(132). 우리에게 대한 영원한 심판자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 받는 자로 만드신다. “인간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지기를 원한다. 인간을 위해서는 더 확실한 구원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더 확실한 위험.”이다(177). “이중예정” 즉, 선택과 유기, 구원과 저주에로의 사전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서로 매우 교차해 있어서 그리스도가 유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죄인이요 저주받은 인간의 선택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인 그리스도의 선택 속에서 인간에게는 첫 번째 것, 선택, 구원, 생명을 주기로 결정하셨고,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는 두 번째 것, 유기, 저주, 죽음을 주기로 결정하셨다.”(177).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하여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우리의 유기를 선택했다. “하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자신의 왕자로 선택하였다. 하나님은 요셉 정원에 있는 무덤을 영원한 하나님인 자신의 존재의 자리로 선택하였다.”(180). 십자가 위의 하나님의 사건을 인간 세계 속에 있는 악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칭의로 부르기를 바르트는 주저하지 않는다: 신정론! 그리고 유기된 인간의 선택은 죄인의 칭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다.

예정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버림받지-않음에 대한 믿음이요, 인간의 유기를 믿지-않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의 속에서 버림받은 것은 자신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바로 이 사실 속에 하나님의 자기희생이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셨으며 보내셨다. 이 아들이 버림 받았고, 그로써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 ... 예정은 인간의 자유선언을 의미하는데, 그 인간 안에서 하나님은 자유선언 받은 사람 대신에 자기 자신을 ... 버림받은 자로 규정한다: 세계의 시작부터 도살당한 저 어린 양에 이르기까지.”(18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은 인간즉, 모든 인간의 버림받지-않음이다.

버림받지-않음이라는 표현으로 바르트가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넘쳐흐름”(184, 그 외 자주)에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 안에 버림받지-않은 인간을 위한 구원에서의 결정과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다. “인자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되어 고난 받는 것은 ... 오직 그 십자가에 뒤따르는 부활의 영광,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길과 동시적으로만 받는다.”(189).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을 당하고 또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처럼(롬4:25), 그는 우리의 선택과 영화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고 부활하신다.

바르트가 자신의 의지개념을 “하나님의 영광의 흘러넘침”이라는 신플라톤적인 개념을 통하여 이제 “은총의 선택”과 균형을 맞춘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그의 사고 과정 속에서 “버림받지-않음”이라는 부정의 부정의 자리에 우리는 본래 “선택”이나 “은총의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개념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는 하나의 본질개념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넘쳐흐르는 영광”을 통하여 이러한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단순한 선택개념이 아니라, 유기를 대리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일어나는 선택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은총의 선택”이라는 처음의 개념은 너무 일반적이다. 기독교론적으로 볼 때 여기서 주요관건이 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부정함으로써 일어나며 따라서 논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그런 입장에 관한 문제이다.(비교. 롬8:31-39).



칼 바르트가 그렇게 인상 깊이 교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마틴 루터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찾았고 또한 발견하였다.<sup>10</sup> 이중예정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확신보다는 두려움을 더 불러일으켰다. 그것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유기를 생각한다: 즉, “영원히 저주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중세 이후로 이러한 영역에서 두 가지 두려움을 생각한다:

1. Tentatio de indignitate(자신이 가치 없다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시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정도로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tentatio de particularitate(소수에 속했다는 시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적은 사람들에게 속하는가? 이러한 두려움들은 젊은 루터를 미치게 만들었던 것들이다. 그는 저주받은 자들이 받는 지옥의 고통을 느꼈다. 그 때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원장 요한 폰 슈타우피츠(Johann von Staupitz)가 루터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 주었다:

“Si vis disputare de predestinatione, incipe a vulneribus Christi.

Tunc cessabit simul omnia disputatio de predesdinatione”.

“만일 당신이 예정에 관하여 깊이 숙고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상처와 함께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면 즉시로 예정에 관한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입니다.”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생각으로부터 지옥의 두려움에 빠졌던 그가 “그리스도의 상처” 속에서 무엇을 인식하였을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훨씬 더 버림받았으며 가장 깊은 지옥의 고난을 철저히 받은 바로 그 분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에게 고난 받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바로 이러한 conformitas Christi(그리스도를 닮아감)가 그를 구원한다.

“Verissimum itaque signum predestinationis et immediatum est conformitas passionis Christi”.

예정의 참되고 직접적인 표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인식하는 사람은 시험 당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며 그리스도와 연합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는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그의 저주와 지옥의 고통도 극복하셨음을 인식하게 되며, 또한 그리스도가 그를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길로 함께 인도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루터는 고전15:55을 “지옥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번역하고 있다.

루터는 요한 폰 슈타우피츠의 조언을 위로가 되며 구원을 주는 것으로 느꼈고, 스스로 그 조언을 1519년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설교”에서 전달하고 있다:

“여러분은 예정과 함께 오는 고통의 지옥과 영원함을 여러분 자신 안에서, 고통 그 자체 안에서, 그리고 저주 받은 사람들 안에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상을 바라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지옥에 내려가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상 안에서 여러분의 지옥은 극복되었고, 여러분의 불확실한 예정은 확실한 것이 되었습니다 …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sup>11</sup>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기와 선택은 인간에게 계시된다. 칼 바르트와 생각을 같이한 사람이 많이 있다. 요한 칼빈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는 선택의 거울이다. 그리스도는 “speculum electionis”.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인이 자신의 선택 받음을 인식하게 되는 거울이다. 그리스도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칼빈주의자들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은행계좌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 III.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선택과 유기

바르트의 기독교적 예정론에 관한 서술에 하나의 독자적인 장을 할애하고자 한다. 이는 칼 바르트의 의미에서 그의 신학을 정치신학과 대화시키기를 원했던 바램과 일치한다.<sup>12</sup> 내 견해로 볼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자신의 흘러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유기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바르트는 확신 있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 속에서 그의 선택과 유기는 어떻게 보이는가?

성서의 예언자적 전통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개인적인 신앙이나 사람들의 불신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에서 비인간적인 불의와 불경건한 폭력행사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며, 그리고 누구를 버리시며, 또 어떤 의도로 “주께서” 선택하시고 버리시는가?

눅4:18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에 관한 복음을 모든 세계에 보편적이면서도 동시적으로 선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들”, “포로 된 자들”, “눈먼 자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프란쯔 파논(Franz Fanon)의 책 제목처럼 “이 땅의 저주받은 자들”에게 먼저 선포하신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폭력적인 사회가 지하로 밀어 넣은 사람들이며 충만한 생명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자칭 엘리트들에게 오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의 “가장 작은 형제들과 자매들”(마25) 즉, 이 시대의 직업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 고향을 잃은 이주민들에게 도래한다. 이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때, 눅1:48에 따르면 하나님이 “자신의 처녀의 비천함을” 돌아 보았고 세상의 구원으로 선택하셨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에 관한 유명한 노래를 부른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눅 1:52-53)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은 이 세계의 불의 가운데 고통 받는 자들의 편에 있으며 당파적으로 희생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비참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과 부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이고도 자비로운 은총의 선택을 고린도에 있는 첫 그리스도공동체에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1:25-29).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며 한 백성에 속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위한 부정문의 형식이다. 바로 이 보편적인 인간적 연대를 위하여 하나님은 소자를 택하시고 큰 자를 버린다. 하나님이 큰 자를 버리는 것은 보복이나 복수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부자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불의와 폭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의를 이루시는 것은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그들도 자신의 폭력행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이다. 처음 된 자들이 나중 될 것이지만, 그들 또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40장에서 큰 그림으로 모든 사람의 눈에 드러난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사40:3-5; 눅3:4-6)

여기서 하나님의 높임과 낮춤, 선택과 유기의 보편적인 목표가 역사 속에서 긍정적으로 제시된다: 하나님은 높이시고 낮추시며, 선택하시고 버리신다. 그렇게 함으로서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이다.” 인간의 현실적인 불평등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방해한다. 그러나 의로운 공동체는 그것을 촉진시킨다.

가난에 대한 대안은 부가 아니다. 즉, 가난과 부에 대한 대안은 공동체이다. 이것은 마틴 루터 킹이 섬기고자 했던 “사랑 받는 공동체(beloved community)”이다. 부자들과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들이 스스로를 높여 다른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로 살 때 버렸던 가난한자들, 약자들과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마틴 루터 킹은 1963년 자신의 위대한 “꿈”을 이사야 40장의 그림으로 그 절정을 장식하였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희망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만큼이나 보편적인 것이다. 그것은 연대적 세계에 대한 희망이다.

#### IV. 예정과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전히 예정에 관한 세 번째 시험이 남아있다: 즉, tentatio de infirmitate fidei(확신이 없는 신앙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과 용기가 의를 위하여 싸우기에 너무 약하며, 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저항하기에 너무 약하다는 두려움이다.

제2차 종교개혁 시기에는 가톨릭의 반(反)종교개혁이 대륙에서 시작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교도들이, 이탈리아에서는 왈도파들이, 오스트리아에서는 루터파들이 핍박을 당하고 추방되었다. 반면에 슈트라스부르크와 제네바, 그리고 프리슬란트(Friesland) 등지에는 망명인 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 당시에 신앙 안에 굳건히 머무는 것과 인내하는 것은 서유럽의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실존적인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우리는 예정에 관한 칼빈의 가르침들을 이해해야만 한다.<sup>13</sup>

그러한 상황에서 선택의 확신은 위로와 용기를 준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의 확고한 사랑은 영원하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또한 이루시리라.” 예정론의 최고 절정은 불신자들로 가득한 대중들 속의 엘리트 신자들이 아니라, “coetus electorum in massa perditionis(타락한 대중들 속에 선택받은 무리들)”(Augustin)가 아니라, 사회적인 비천과 핍박과 추방, 그리고 순교 가운데서 신자들의 견인이다. “단지 이 교리가 빛을 발하기만 한다면, 복음 전체가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바르트는 덧붙이고 있다.<sup>14</sup> 구원의 확신이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믿음 안에 머무르도록 일깨워 주시며 의에 대한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한다.

선택의 확신은 엘리트의 자기확신이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 확신이다. 그러나 어디에서 그 신학적인 근거들을 찾을 수 있겠는가?

칼빈은 믿음의 근거를 경험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찾았다. 따라서 신앙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한 참여이기도 하다(히10:32, 12:2, 계1:9, 2:2, 13:10).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10:22). 여기서 마지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나라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의미한다. 이것은 왜 “그리스도의 인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희망의 하나님(롬15:13)은 또한 인내의 하나님이다(롬15:5). “믿음은 희망을 뒷받침하는 바탕이며, 그러나 희망은 믿음을 바로 세우며 살아있도록 유지한다.”라고 칼빈은 적고 있다(Inst. III,2,43).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믿은 후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만물이 완성될 때까지 이겨내는 것이다.”(Inst. III,2,23). 그러나 사람이 비천과 핍박 가운데 연약하여 여진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칼빈은 베드로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가리키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가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한 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은 곧 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이다(눅22:32).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를 위한 결론은 저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모든 위험 밖에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하나님 경외가 지속될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며, 그 때 그 어떤 거부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Inst. III,24,6).

그 어떤 무거운 죄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할 수 없다는 이 확신은 “제2차 종교개혁” 과정에서 삼위일체적으로 근거를 확립하였다:

- 1. 자기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 2.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중보기도 안에서

---

<sup>1</sup> J. Moltmann, Prädestination und Heilsgeschichte bei Moyse Amyraut.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r reformierten Theologie zwischen Orthodoxie und Aufklärung, ZKG 65/66(1953/1954), 270-303.

---

<sup>2</sup> M.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in: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I, Tübingen 1974<sup>4</sup>, 206.

<sup>3</sup> Zitat bei Karl Barth, Kirchliche Dogmatik II/2, 12.

<sup>4</sup> Heppe/Bizer, Die Dogmatik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 Neukirchen 1958, 119.

<sup>5</sup> H. Otten, Calvins theologische Anschauung von der Prädestination, Göttingen 1938.

<sup>6</sup> **Mouhanad Khorchide**, Islam ist Barmherzigkeit, Freiburg 2012

<sup>7</sup> G. Schrenk, Gottesreich und Bund im älteren Protestantismus, Gütersloh 1923.

<sup>8</sup> F. Kluge,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1963<sup>9</sup>, Art. Frei, 216. W. Huber, Von der Freiheit, München 2012.

<sup>9</sup> J.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Zur Gotteslehre, München 1980, 71-72.

<sup>10</sup> E. Wolf, Staupitz und Luther, Göttingen 1927; E. Vogelsang, Der angefochtene Christus bei Luther, Göttingen 1932.

<sup>11</sup> M. Luther, WA2, 690.

<sup>12</sup> 보라. J.B. Metz, J. Moltmann, W. Oelmüller, Kirche im Prozess der Aufklärung, München – Mainz 1970. 이것은 새로운 비판적 정치신학의 선언이었다.

<sup>13</sup> J. Moltmann, Prädestination und Perseveranz. Geschichte und Bedeutung der reformierten Lehre „de perseverantia sanctorum“, Neukirchen 1961.

<sup>14</sup> Daniel Benoit, Andre´ Favre, Marie Durand, Dieulefit 1945.